

■장관·장관급 명단 및 출신지 (7월현재)

부처	성명	출신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대구
기획재정부	박재완	경남
외교통상부	김성환	서울
국방부	김관진	전북
지식경제부	최중경	경기
법무부	권재진(내정)	대구
행정안전부	맹형규	서울
국토해양부	권도엽	경북
통일부	한인택	제주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경기
보건복지가족부	진수희	대전
고용노동부	이재필	울산
환경부	유영숙	강원
여성가족부	백희영	서울
농림수산업부	서규용	충북
감사원	양건	함경
국가정보원	원세훈	경북
대통령실	임태희	경기
국무총리실	임재민	서울
특임장관실	이재오	경북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충남
공정위원회	김성동	부산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전남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부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경북

■차관·차관급 명단 및 출신지

부처	성명	출신
외교통상부	박석환	경남
	민상직	전남
지식경제부	김정관	대구
	김정관	부산
통일부	엄종식	서울
행정안전부	김남식	강원
	이종배	충북
환경부	윤종수	충북
특임	김해진	경남
고용노동부	이기권	전남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경남
	김창경	서울
국방부	이용길	부산
국토해양부	한민희	충남
	김희국	전남
기획재정부	임종룡	전남
	류상걸	경북
농림수산업부	이상길	경북
	오정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모효민	서울
	박성규	전북
법무부	황희철	광주
보건복지부	최원영	경남
여성가족부	김대서	경남
검찰청	한상대(내정)	서울
소방방재청	이기환	대구
경찰청	조현오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경기
국세청	이현동	경북
기상청	조석준	충남
조달청	최규연	강원
통계청	우기중	전남
특허청	이수원	강원
해양경찰청	모강민	전남
농촌진흥청	민승규	서울
중소기업청	김홍선	강원
관세청	주영섭	전북
문화재청	최광식	서울
방위사업청	노대래	충남
국가보훈처	박승훈	강원
법제처	정진태	광주
병무청	김영후	전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민호	대전
신원청	이돈구	충북

■ MB정부 4년차 광주·전남 장관급 인맥 해부

권력 요직엔 한명 없고 대부분 변방 포진

청와대 고위직 인사 63명 중 지역 출신은 박재영 행정자치부서관 1명뿐

이명박 정부에서의 광주·전남지역 출신 장관·차관 비율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관 및 장관급은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차관 및 차관급은 8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착시 현상? = 이명박 정부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차관 및 차관급이 8명이나 된다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관료들이 '차관 전성시대'를 맞고 있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지역 정관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차관 및 차관급은 대부분 업무 실적을 토대로 한 내부 평가를 토대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배려 등 면, 차관 및 차관급은 비교적 적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차관 및 차관급에 광주·전남지역 출신 관료들이 많이 기용된 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호평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관 및 차관급 인사들의 출신 지역 비율을 놓고 이명박 정부의 지역 배려를 통한 국민화합의 의지를 읽는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편중 인사 =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편중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장관 및 장관급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한 현실이다. 반면 영남 출신은 10명에 이르러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3명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박재영 행정자치부서관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영남 출신은 20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정원장, 국무총장, 검찰총장, 검찰총장 등 소위 4대 권력기관의 수장도 영남 인맥이 장악하고 있다.



25일 광산구 수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주민이 강운태 시장에게 원안대로 U대회 수영장을 수완지구로 건립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姜, 수영장 입지 원칙론 고수

과외 대화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이준형씨는 "전임 시장이 잘못했다는데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원안대로 건립하라고 주장하는 주민들만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다. 시민끼리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수완지구를 U대회 수영장 부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그 어디에서도 밝힌 적이 없다"며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공청회 등의견수절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민과의 대화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가량 넘게 진행됐으며, 질의에 나선 한 주민이 아이들 교육 문제를 들며 도서관 건립 등을 이야기하자 다른 주민들이 "수영장 이야기부터", "시청에서 심은 사람 아니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양수현기자 yang@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10만명 입주 대상

영구임대 1만4000세대 불과

■ 광주 집 없는 서민 살 곳이 없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25일 간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가가 약 7000명에 달하고 있고, 국민주택 이상 규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600만~700만 원을 호가하는 등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건설업체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등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원주민들의 주거지 이탈을 초래하고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구역도 시공사를 정하지 못해 장기간 정체되는 등 주택 수요·공급 불균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방안 찾아라" = 강 시장은 이날 광주발전재단위원회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주거실태 조사와 관련 보고를 받고 "실태조사는 그대로 하되 광주 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소요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도시 재생사업이 시정의 최대 현안인데다 구도심 내 거주자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한 강 시장은 그 해법을 "지주부진한 재건축·재개발+공공영구임대아파트 공급"에서 찾은 것이다. 강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상당수가 중단상태에 있으며 중립영구임대아파트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 나름대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대상구역에 500세대가 들어선다면 100세대 정도를 영구임대아파트로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도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원과 사업 주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정책

및 재원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7만명, 영구임대 1만4000세대 불과 = 영구임대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을 국민임대내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 매달소득의 50~7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두 저소득층이지만 영구임대와 비교해 높은 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받는 국민임대는 최근까지 공급되고 있으나 영구임대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 양정부는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역 나름대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대상구역에 500세대가 들어선다면 100세대 정도를 영구임대아파트로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도시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는 쌍촌시영 500세대, 하남시영 1500세대, 금호시영 1500세대 등 3500세대, LH공사의 영구임대는 두암2주공 1640세대, 두암4주공 1133세대, 각화주공 1415세대, 우산주공

■광주도시공사 영구임대 대가자

면적	(2011년 6월 현재)		
	37.73㎡ (12평)	48.67㎡ (14평)	62.58㎡ (17평)
쌍촌시영	278	319	269
하남시영	127	116	181
금호시영	144	463	919
계	2816명		

■LH 영구임대아파트 대가자

면적	(2011년 6월 현재)		
	39㎡ (11.80평)	43㎡ (13평)	56㎡ (16.94평)
두암4주공	269	631	-
두암2주공	82	325	-
우산주공	229	379	-
오치주공	114	331	-
각화주공	58	86	-
쌍촌주공	231	340	447
하남주공	75	233	318
계	4148명		

1274세대, 오치주공 1658세대, 하남주공 1884세대, 쌍촌주공 1416세대 등 1만420세대로 모두 합쳐도 1만3920세대에 불과하다. 새로운 영구임대 공급이 중단되면서 수요는 늘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 하반기 시영 영구임대주택 3500세대에 대해 국비 10억 6000만원 등 15억1400만원을 들여 노후 공공시설 및 세대 내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육·해·공 어찌하오리까?!

왕복항공으로 떠나는 **2011 여름방학 제주도 바캉스 상품 특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인증한 우수여행상품

왕복항공 2명이상 출발가능!! 다른 일정, 다른 날짜 출발가능

와~ 여름방학이다! 가깝고 아름다운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관광도 하고 해수욕도 즐기는 바캉스 - 최고의 일석이조 여행 가족모두와 함께 할수 있는 새롭고 알찬 일정의 대박여행

알뜰특가 패키지 해수욕+관광열차+新제주관광명소 탐방 2박 3일

성인 ₩289,000원~ 아동 ₩249,000원~

육해공 패키지 마라도잠수함+우도유람선 투어+新제주관광명소 탐방 2박 3일

성인 ₩339,000원~ 아동 ₩299,000원~

해수욕장 자유이용권 1인 10,000원권 증정!!

•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 선택관광, 준비물(선분종, 세면도구) • 공통포함사항 : 광주→제주 왕복항공, 숙박, 식사(관객/특급 호텔은 식식 불포함), 일정내 관광요금, 여행자보험, ★ 전상품 유가할증료 포함 ※ 우도, 마라도 잠수함 사전예약 가능

★ 이호태우 해수욕장 자유시간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약수시음) - ★ 휴메리자연생태공원 - 국제평화센터 - ★ 꽃지생태소 및 물레길 체험 - ★ 코끼리소 - 평화박물관(일본군 지하요새) - ★ 제주에코랜드 생태공원 관광열차 체험 - ★ 조랑말체험 또는 트릭아트 - ★ 휘닉스아일랜드 해양공원

(주)부민가자투어 예약센터 광주 Tel.(062)382-8201 제주 (064)748-3131